

국 문 초 록

산드라 시스네로스(Sandra Cisneros, 1954~)는 1970년대 까지만 해도 비주류로 치부되던 치카나 문학을 주류의 반열에 올리는데 이바지한 ‘치카나 르네상스’를 주도한 선구자 그룹에 속한다. 작가의 다문화적 성장배경인 바리오를 소재로 집필한 첫 소설 『망고스트리트의 집 *The House on Mango Street*』(1987)을 비롯하여 샌안토니오의 여러 여성화자의 단편을 담은 『개울가에서 울부짖는 여인과 다른 이야기들 *Woman Hollering Creek and Other Stories*』(1991)과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을 넘나드는 치카나 가족의 역사를 다룬 『카라멜로 *Caramelo, o Puro Cuento*』(2002), 이상 세 편의 소설은 시스네로스 특유의 문체인 아름다운 운율과 낙관적인 목소리로 다문화 사회의 단면들을 읊조린다. 미국사회 내 소수민족이라는 피지배 계층의 여성으로 살아온 작가의 고민은 문학작품으로 다시 태어나, 독자들이 “치카나로 살아가는 법”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자신의 경험을 글로 옮기는 데만 그치지 않고, 정치·사회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스네로스 문학의 현실적 영향력은 대중들에게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온다.

본 논문은 정책적으로 한계점을 드러낸 미국의 다문화주의로의 인문학적 접근을 시도한다. 다문화주의가 지향하는 바인 “다양성의 진정한 공존”을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들의 인식 전환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가정하에, 이분법적 사고를 탈피하고 특정한 문화를 성급하게 스테레오타입화 하여 인지하는 시선을 바꾸어야만 다문화적 요소를 편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따라서 시스네로스의 소설에 나타나는 서사 전략 분석을 통해 작가가 독자들에게 제시하는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인식론적 전망을 총체적인 관점에서 조망해 본다.

시인이자 소설가인 시스네로스는 소설 속에 운문의 메커니즘을 활용해 작품의 음악성을 강조하고 부드럽지만 강한 메타포를 선보인다. 또한, 그의 소설은 다양한 소재를 동시에 다루고 있어 하나의 특정한 장르의 소설로 분류하기 어려운 범 장르적 특성이 있다. 그리고 영어와 스페인어를 혼용한 작가의 이중언어는 해를 거듭하며 스페인어의 개입을 더욱 적극적으로 표현하는데, 이는 스페인어와 영어 사이의 장벽을 허물고자 하는 그의 노력을 대변한다. 이러한 특징들은 독자들이 작품을 읽을 때 갖는 통념을 깨는 것이다. 시스네로스의 주요 문학 테마인 공간은 작품의 연대기적 순서에 따라 좁은 곳에서 넓은 곳으로, 또 개인적 장소에서 집단적 환경으로 발전해 나가는데, 궁극적으로 공간의 물리적 확장뿐 아니라 상징적 의미 또한 전복되고, 발전함을 볼 수 있다. 최근작 『카라멜로』에서는 현실과 허구가 뒤섞이고, 다양한 문화가 혼종된 장면들을 통해 작가는 독자들이 치카노 사회를 인식하는 시선을 환기시킨다.

인종/성별/사회적 지위 등 면면이 ‘타자성’이 낙인 찍힌 삶을 살아온 시스네로스의 개인적 고뇌는 소설을 통해 가시화되고, 능동적인 목소리로 바깥세상에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 놓는 그의 작품은 이러한 맥락에서 정치적이다. 한 작가의 작품관은 본인의 세계관과도 궤를 같이한다. 특히나 소수민족 작가의 경우, 글쓰기와 작품 속 화자의 이데올로기적 간극은 아주 작다. 분리를 상징하는 여러 기준들을 혼합/확장/교차시키는 서사 기법을 활용하여 다문화주의 사회에 새로운 인식론적 전망을 시사하는 시스네로스의 글쓰기는 전략적인 도구이다.

주요어 : 치카나 문학, 소설 장르, 이중언어, 공간, 문화 혼종성
학 번 : 2007-20034

